"맛·멋 노하우 전수해 드립니다"

전남도, 음식점 등 관광업소 370곳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나서

전남도가 음식점과 숙박 업소 등 관광업계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

'2008년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음식 상차림과 손님맞이 태도, 청결한 업소 유지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서다.

전남도는 13일 "본격적인 관광시즌을 맞아 도내 음식·숙박·운수업 등 관광업소 370곳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가 종업원들의 친절한 손님맞이 태도와 업소의 위생 및 분위기 개선 등을 교육하고 자문하는 '맞춤형 이동 컨설팅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컨설팅은 음식·숙박 관련 전문가들이 업소를 직접 방문, 1대 1로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전남도는 1차적으로 숙박업, 운수업, 휴게소 등 170여개 업소를 선정해 5명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턴트를 파견해 지난 4일부터 컨설팅을 하고 있다.

도는 또 200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번 제공한 음식 재사용 금지 ▲개별 반찬 제공 ▲찌개 등 국물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게 국자, 빈 그릇 제공 등 위생적인 상차림 문화 전파에도 주력한다.

이와 함께 해당 음식점의 경영진단, 업주 및 종사자 친절교육도 하게 된다.

전남도는 이같은 관광업소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깨끗한 전남의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2008년 광주전남 방문의 해 목표인 3천3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컨설팅을 받은 광양 필레모호텔 황경일(42) 지배인은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업소의 인력난과 영세성으로 인해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가 어려웠다"며 "이번에 방문 컨설팅을 받게 되니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에 도움이 되고 스스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긍정적 자세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민주 '본선 티켓' 잡기 막판 생존경쟁 치열

통합민주당이 경선지역 30여 곳을 1차적으로 선정, 당 '국민여론조사경선 관리위원회'에 대상 후보들의 명단을 넘김에 따라 본선 티켓을 잡기 위한 마지막 생존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공천은 당선'이라는 등식이 적용되는 호남의 경우 현재까지 '생존'한 12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추가 탈락자가 속출할 수 있어 치열한 서바이벌 게임이 예상된다. 이미 30%에 달하는 9명의 현역이 '아웃'된데 이어, 전체 물갈이 폭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경선지역 37곳을 선정, 일단 2배수로 압축해 경선에서 맞붙게 될 각 지역 후보자들에게 13일 개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리 전력 후보가 낙마한 곳이나, 현역 의원들이 탈락한 지역구의 경우 이들의 '공석'을 메울 추가 후보를 가리기 위한 재압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총 경선 지역 규모는 40여 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호남의 경우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려는 후보들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그야말로 '태풍전야'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15일 오전부터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중앙당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상대후보 흠집 내기에 나서는 등 조금이라도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광주·전남에서는 14일 하루 동안 '전·현직 시·구의원이나 지역 유력인사가 이번 총선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일부 선거구에선 지지선언 경쟁이 과열되면서 최종 경합후보 2명에게 지지선언을 한 구의원의 숫자가, 구의원 정원을 훨씬 초과하는 웃지못할 사태도 빚어졌다.

광주의 한 예비후보는 "지지선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여론조사에서 미치는 영향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라며 "후보들이 막바지 지지세력 끌어들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을과 북구을, 목포 등 2배수 경합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두 차례의 여론조사를 거쳐야 하는 지역에서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렸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어느 후보가 최종 2배수 후보로 확정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유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상대후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제보가 쇄도했다. 2배수 압축 과정에서 탈락한 한 후보는 "공심위의 심각한 편파적 여론조사 때문에 2배수 압축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공심위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천명하기도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공천에서 탈락한 통합민주당 전주덕진 채수찬 의원 지지자들이 14일 서울 당산동 당사 앞에서 반발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전략기획실 개입' 수사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4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등 핵심 사건에 전략기획실(옛 구조조정본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전날 조사했던 이학수 전략기획실장(부회장)을 조만간 다시 소환하는 한편 김인주 전략기획지원팀장(사장)과 전용배 상무 등 전략기획실 핵심 임원들을 차례로 불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윤정석 특검보는 "전략기획실 이학수 부회장은 어제 조사를 받았지만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재소환할 계획"이라며 "김인주 사장과 전용배 상무 등도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에버랜드 사건 등에서 당시 구조본의 역할과 그룹 차원의 지시·공모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박상천 대표 '몽니'?

호남 전략공천 지역 확대 주장…발표 지연

통합민주당 박상천 공동대표의 '전략공천 몽니'에 광주·전남지역 공천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박 대표가 호남지역 일부 지역구에 대한 전략공천을 주장하면서 공심위의 공천안에 대한 인준을 지연하는 등 최종 공천 작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통합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략공천 후보지 33곳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손학규 대표와 박상천 대표 간의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전략공천 후보지 33곳은 손학규 대표가 제시한 서울 종로, 중구, 동작을, 강남갑·을, 서초 갑·을, 성북을, 영등포 을 등 28곳과 박상천 대표가 제안한 광주 서구갑·을, 광산 갑, 전남 담양·곡성·구례, 전북 익산 갑 등 호남 지역 5곳 등이다.

이 가운데 손학규 대표가 제시한 11개 지역구에 대해서는 두 대표 간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박 대표가 요구한 호남지역 5곳 등 22개 지역구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처리할 예정이었던 김효석 의원의 곡성·담양·구례 공천안도 박상천 대표가 전략공천을 거론하며 최종 결정을 2~3일 연기할 것을 주장, 발표가 무산됐다.

박 대표는 지난 13일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을 내세우며 김효석 의원의 공천 발표를 하루 늦춰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효석 의원은 "쇄신 공천으로 동료 의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공천에서 탈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지역의 전략공천을 요구하는 것은 '정략공천'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표가 호남 일부 지역에 대한 전략공천을 계속 주장할 경우, 국민여론조사 경선 이후에도 최종 공천자 발표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시 설

광주·전남 현역의원 '물갈이' 주목된다

통합민주당의 광주·전남 현역의원 '물갈이'가 현실화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2차 공천심사에서 정동채 의원과 김태홍 의원 등 광주·전남 현역의원 6명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불출마를 선언한 염동연 의원까지 포함하면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은 7명이다.

통합민주당의 광주·전남 현역의원 물갈이 폭은 30% 수준이다. 경합지역의 3차 심사 등이 진행되면 최종 탈락률이 50%를 웃돌 것이라고 한다. 예상을 뛰어 넘는 공천혁명이 아닐 수 없다.

공천심사위가 탈락률을 미리 설정해 놓고 현역의원들을 일방적으로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탈락한 현역의원들은 정치생명이 걸려 있는 만큼 억울하고 분할 것이다. 정동채 의원을 제외한 탈락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공천이 당선처럼 인식되고 있는 광주·전남에서 현역의원을 교체한 것은 평가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기존 정치권에 실망해 대폭적인 물갈이를 요구해 왔다. 개혁공천은 지지율이 한나라당의 3분의 1수준인 상황에서 총선 전략 차원에서도 불가피할 것이다.

객관적 기준을 적용, 공천을 결정했다면 탈락자들이 반발할 명분은 줄어든다. 문제는 탈락한 현역의원 대신 얼마나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내세우느냐다. 계파간 나눠먹기나 자기 사람 심기 등 구태를 되풀이해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개혁공천은 당 수뇌부의 서울지역 출마와 맞물려 수도권 등 전국의 총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리멸렬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민주당이 잇단 쇄신을 통해 한나라당의 견제세력으로 거듭 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U대회 광주 유치 시민참여 더 확산돼야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하계 U대회) 광주 유치에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하계 U대회 유치 범시민지원단이 출범한 데 이어 13일에는 '대학생 지원단'이 닻을 올리는 등 광주시민들의 유치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하계 U대회 유치 붐 조성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는 지금까지 86만 명이 동참했다. 하계 U대회 유치 성공 여부가 시민들의 참여 열기에 달려 있는 만큼 유치 열기 확산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하계 U대회 광주 유치는 지금으로선 낙관할 수 없는 단계다. 광주가 유치전에 뒤늦게 뛰어든데다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인 러시아 카잔시가 범국가적 지원을 등에 업고 3번째 도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카잔시는 2011년 개최지 선정 때 중국에 한 표 차로 패하는 등 탄탄한 조직력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유치 성공 여부는 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광주를 방문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장도 "하계 U대회 유치 성공 여부는 시민들의 열기와 노력이 관건이다"고 말했다.

하계 U대회의 경제적 효과는 막대하다. 광주 유치가 성사될 경우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1조4천억 원에 이르고 고용 창출효과도 3만 명에 달한다. 또한, 광주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계 U대회의 광주 유치가 반드시 성공해야 할 이유다.

하계 U대회의 시민 참여 열기는 더 확산돼야 한다. 140만 광주시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대회 유치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 영어교육 강화 인프라 구축

전남도 , 美 미주리 주립대학과 원어민 강사 확보 등 협약

전남도가 취약한 농어촌 영어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원어민 강사 확보 등을 위해 미국 명문 대학교와 협약을 맺는 등 영어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해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학과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올해 미주리 주립대학과 협약에 나서는 등 농어촌 지역 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14일 도지사실에서 미주리주 주립대학 캐롤린 헤링턴(Carolyn D. Herrington) 교육학장을 면담하고 원어민 강사 지원과 학생 어학연수 협력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졌다.

전남도는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오는 5월초 예정된 박 지사의 미국 투자유치 순방시 협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박 지사가 직접 미국 자매결연 도시인 오리건주를 방문해 포틀랜드 주립대학과 영어교육원 협약을 체결하고, 원어민 강사를 지원받아 무료 영어캠프를 운영해왔다.

도는 이번 미주리 주립대와의 원만한 협의로 포틀랜드 주립대학과 함께 올해 여름방학 기간에 운영되는 무료 영어캠프에 원어민 강사를 지원받고, 하반기 배치 예정인 농어촌 학교 원어민 강사 20명도 우수 강사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방학기간에 전남도내 농어촌 학생이 미국 현지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도내 농어촌 지역 초·중·고생 810명을 대상으로 무료 영어캠프를 운영해 좋은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는 1천8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光陽日評

- 김종두

서민들 목숨도 장난 아니다

금값 온스당 1,000달러 돌파

국제유가도 배럴당 111달러

국제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 당 1천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국제유가도 배럴 당 111달러를 기록, 달러 가치 하락으로 촉발된 국제상품 가격의 급등세가 이어졌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는 장중에 배럴 당 111달러를 기록,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WTI 가격은 또한 전날 종가에 비해 41센트, 0.4% 오른 배럴 당 110.33달러에 거래를 마감,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처음으로 110달러를 넘어섰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의 4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배럴 당 107.88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NYMEX의 4월 인도분 금값은 전날 종가에 비해 13.30달러 오른 온스 당 993.80달러에 거래를 끝냈지만 오전 장에서 온스 당 1,001.5달러까지 급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금값 1천달러 시대를 열었다. 런던 시장의 금 현물 가격도 온스 당 997.67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지난주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온스 당 992.05달러를 넘어섰다.

WTI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90%나 급등했으며 국제금값도 올해 들어서만 19% 상승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칼라일캐피털이 부도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진 뒤 달러-엔 환율이 12년여 만에 처음으로 달러 당 100엔 대 아래로 내려가고 유로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가 사상 최저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국제상품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한때 엔화에 대해 달러 당 99.77엔까지 하락, 지난 1995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달러 당 100엔 아래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나이제한 폐지

내년부터는 행정·외무 고시를 비롯한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제'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에 맞춰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도 개정, 나이제한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임용 시험령은 행시 20~32세, 외시 20~29세, 7급 20~35세, 9급 18~32세로 각각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응시 하한연령은 그대로 유지된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정 치 부 2200-616 경 제 부 2200-617 사 회 1 부 2200-618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경 영 지 원 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문 화 홍 보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